중앙일보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서울 원지동 청계산 등산로 인근에 몽벨・밀레 등 아웃도어 매장들이 자리 잡고 있다. 등산객들이 하산길에 목 을 축이던 막걸리집들을 밀어내고 대기업 아웃도어 업체들이 상권 경쟁을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총선 끝나자 속도 내는 KTX 민영화

국토부, 민간 제안서 공개 15년간 민간업자에 임대 방식 수입 40% 선로사용료 내야

정부가 총선 이후로 잠시 미뤄뒀던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간 개방 작업에 본격 착 수했다.

국토해양부는 2015년 완공 예정인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 운송사업을 위한 제 안요청서(RFP)안을 19일 공개했다. KTX사 업 참가를 원하는 민간 기업에 구체적인 입 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주성호 국 토부 제2차관은 이날 "철도산업 발전과 요 금 인하,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는 철도 경쟁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 개방은 정부가 건설한 KTX 선로를 15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신 사업자는 운 송수입의 40%를 선로사용료로 내야 한다.

또 해당 노선 운임은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 는 KTX 요금의 85% 선에서 책정된다. 이후 80% 선까지 낮추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 다. 국토부 고용석 철도운영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되도 록 RFP에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요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서울메 트로 9호선과 달리 해당 노선엔 요금 상한제 를 적용해 민간사업자가 맘대로 요금을 올 릴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컨소시엄의 지분 한도도 정해졌다. 대기업 지분은 49%로 제 한되며 나머지 51%는 국민공모, 공기업, 중 소기업에 배정토록 했다. 일부에서 제기하 는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한 조치다. 열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구입한 뒤 민 간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RFP를 공고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시기는 당초 6월에서 한두 달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수서발 KTX 민간운영 제안요청서 내용

–	
항목	내용
운영기간	15년간 선로임대
지분구조	대기업 지분 49%로 제한. 나머지는 공기업(11%), 중소기업(10%), 일반(30%)에 할당
요금	코레일 요금 대비 85% 수준
선로사용료	운송수입의 40~50%(현재 코레일은 31%)
으여ᆉ라	철도시설공단이 구입해 민간에 대여.

대여료는 30년 균등상환(1000억원)

그러나 정치권과 철도노조, 일부 시민단 체 등에서 KTX 민간 개방에 반대하고 있 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8일 "경쟁체제 도입 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기간교통망을 (민간 에) 넘겨주려 한다"며 KTX 민간개방계획 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철도노조도 "민영화 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강경투 쟁을 선언했다. 김한별·이상화 기자

idstar@joongang.co.kr

아웃도어 매장, 등산로 입구 점령 홍보 효과 노려 유명업체들 경쟁 월세 800만원→2000만원 '껑충'

"하산길 노곤함을 막걸리 한잔에 풀곤 했는데 이젠 어렵게 됐어. 아웃도어 매장으로 바뀌어 버렸으니…."

19일 오전 서울 청계산에서 만난 이상근(80) 씨는 혀를 찼다. 청계산 초입 150여m 거리에 있던 막걸리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자리 엔 대신 등산복과 등산 용품을 파는 아웃도어 매장이 들어섰다. 청계산은 매년 30만여 명의 등산객이 몰리는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산이 다. 청계산을 찾은 지 10년이 넘었다는 이씨는 "2~3년 새 막걸리집은 밀려나고 등산복 매장 만 길가에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청계산 등 산로 입구에서 가까운 쪽일수록 목 좋은 곳으 로 꼽힌다. 그런데 '명당'은 거의 아웃도어 매 장의 차지였다. 머렐·네파·아이더 등 아웃도어 매장 10곳이 줄지어 서 있었다. 청계산 초입에 아웃도어 매장이 생기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부터인데 최근 3년 새 5곳이나 들어섰다. 2009년 3월 LG패션의 '라푸마', 지난해 9월 화 승상사의 '머렐'이 개장했다. K2의 '아이더' 는 개장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아웃도어 업체 '몽벨' 관계자는 "이곳은 브 랜드를 알리는 광고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 든 아웃도어 업체가 사활을 건다"며 "이런 현

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등산로 입구부터 양쪽 으로 아웃도어 매장이 점령했다. 서울 도봉동 아웃도어 매장이 있고, 더 아래쪽 매장을 더 하면 30곳에 이른다. 서울 우이동 북한산 초입 과 경기도 하남 창우동 검단산 초입에는 각각 16곳의 매장이 있었다. 대기업 아웃도어 업체 들 간 '고래 싸움'에 식당들의 '새우 등'이 터 지게 됐다.

막걸리집들은 대부분 등산로 입구에서 한 해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어디 갔지? 산 아래 막걸리집

상은 3년 전부터 심해졌다"고 말했다.

도봉산·북한산·검단산 등 다른 주요 산에 도봉산 초입에는 200m 남짓한 거리에 18곳의

참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폐점했다. 청계산 초입의 경우 포장마차식 간이 음식점 을 포함해도 식당은 5곳이었다. 아웃도어 업 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곳 매장의 월세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3년 전까지만 해도 130㎡ (약 40평) 2층 건물에 약 800만원이던 월세는 현재 200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월세를 감당 하기 힘든 영세 식당들은 하릴없이 밀려났다. 한 식당 업주는 "월세 800만원에 장사했는데 계약이 만료되자 건물주가 2000만원을 요구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학교 돈 17억 빼돌려, 동생 결혼시키고 가족 식당 차려주고

'간 큰' 30대 행정실장

이모(36·여)씨는 상고를 졸업한 뒤 서울 대신 중·고교에 채용돼 15여 년간 근무했다. 학교 행정실장을 맡으면서부터 이씨는 학교와 법 인 통장은 물론 신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머무 는 이사장의 개인 통장과 도장까지 관리했다. 2007년 말부터 이씨는 법인과 학교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가족의 식당 개업, 동생의 결혼자금 등으로 썼다. 지난해 초 뒤늦 게 알아챈 재단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 다. 검찰은 법인·학교회계에서 5억6000만원, 이사장 계좌에서 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했다. 그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 고 복역 중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씨가 근무했던 대 신중·고교의 이사장·감사 등 임원 8명에게 직 무집행정지 처분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장기간 회계 부정이 저질러졌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통해 이씨가 2억70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혔다. 그가 횡령한 금액은 총 17억여원에 이른다. 교 육청은 또 법인 이사와 이사장 직무대행이 공 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다. 감사 결과 법인 이사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의 회의 록엔 이사장이 11회 출석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 중 4회는 해외 체류 중이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42판 제14693호 +